

## 大學人の 學問하는 자세

丁 堯 燮

(淑明女大 名譽教授, 政治學)

## 1. 大學과 學問하는 자세

젊은 대학생이야말로 21세기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어갈 주역들이다. 또한 대학생은 때묻지 않은 젊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희망과 자유의 미래로 이끌고 나아갈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할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숭고하고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은 대학의 등산에서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누구도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은 없다. 일찍이 코르시카의 한 소년은 무지개를 좇아 가기 위해서 가시에 찢리고 늪에 빠지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사투를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지개는 언제나 산 너머에 있었다고 한다. 소년은 끝내 무지개를 손에 넣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으나, 그는 무지개를 향해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칠 때마다 눈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 앞에서 驚異와 흥분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문의 길은 마치 무지개의 길과 같아서 때로는 경이와 흥분을 안겨다 주기는 하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많은 先人들이 그 길 위에 쓰러져 갔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은 남아 있다.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도 이제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신입생은 우선 선인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 안내역을 교수들이 담당해 준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올창한 숲을 헤쳐 나가야 한다.

대학은 진리의 女神이 사는 올창한 푸른 숲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참'을 사랑하고 '義'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의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이 바로 대학이다. 먼 발치에서 보면 그 모습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텍텍이 들어선 나무와 그 나무들을 덮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들 때문에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숲이기도 하다. 물론 그 속을 뚫고 지나간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아직 그 속에는 밟히지 않은 곳도 많고, 비록 밟힌 곳이라 해도 두텁게 쌓인 낙엽들 때문에 자국마저 남지 않고 또 한 곳만을 너무 자주 밟아 설혹 자국이 남은 곳이 있다 해도 헤가 바뀌면 새로운 낙엽으로 다시 가리워져 전혀 생소한 곳으로 바뀌고 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속에는 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관광안내소나 파출소 같은 곳도 없고, 길을 안내해 주고 질서를 유지해주는 친절한 안내원이나 교통순경조차 없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장승 같이 무뎉뎉한 안내관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

기 쉽고 목적을 잃고 헤매기 쉽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일생 동안에 몇 번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빛나는 대학생들의 첫 출발은 사슬에서 풀려나온 프로메테우스와도 같다고 하겠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대학이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부여한 새로운 학문의 자유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충분한 지도를 받는 것이 방황하는 시간을 절약 내지는 단축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겠다.

원래 학생(student)이라는 어원은 '열심을 다하는 자'라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부할 의욕이 없는 자, 직업혁명가르 자처하는 자는 대학교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무릇 학문의 세계를 일컬어 흔히 學海라고 한다. 이 말에는 先人들이 몸소 사색하고 체험하여 얻은 깊은 교훈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르는 하천과 같이 끊임없이 劬苦勉勵하여야 비로소 학문의 바다에 이를 수 있으니 부단히 노력할 것을 가르친 말이라 하겠다.

둘째는 학문의 세계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 이치의 심오함이 이를 데 없으니 겸허한 것을 가르친 말이라 하겠다.

셋째는 학문의 세계가 마치 망망대해와 같아서 끝없이 넓고 험하여 암초에 부딪치거나 풍랑에 뒤집히기 쉬우니 용기를 지니되 조심할 것을 가르친 말이라 하겠다.

넷째는 육지와는 달리 길이 눈앞에 따로 보이지 아니하니 방향을 잃고 방랑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선인의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따를 것을 가르친 말이라 하겠다.

이처럼 학문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단한 노력과 겸허, 용기와 조심성을 지녀야 비로소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선인도 이르기를 "학문에 뜻을 두는 이는 쇠틸 같이 많으나 그業을 이루는 이는 기린의 뿔과 같이 드물다."고 하였으니 학문에의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깨우쳐 주는 말이라 하겠다. 공자의 말씀에 '朝聞道夕死可矣'라는 말이 있는데 실로 아침에 도를 깨

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의 열화와 같은 정열과 집념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大學의 使命은 그 힘과 '에네르기'를 안으로 축적시켜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장, 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어 대학 본연의 년학 분위기를 말살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대학 캠퍼스가 대학생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까지 폭력과 시위의 종합운동장화하고 있는 현실을 대학인 스스로가 결연히 일어나서 이와 같이 오염된 학원의 병폐와 무쾌도한 현실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폭력과 무질서는 민주주의의 적이기 전에 앞서 진리와 학문과 대학의 적이다. 캠퍼스란 대학과 대학인만의 장일 때 캠퍼스로서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대학은 한 정권에 예속되어서도 아니 되며, 특정한 정치단체의 도구 내지는 하수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대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민족과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성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칼 야스퍼스는 "대학이란 행동에 의한 현실접근이 아니라 認識에 의한 현실접근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의 우리 대학은 행동이 아닌 이성적 진리탐구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바로 학문과 학술에 이바지하는 지적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학은 '知的創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성은 지식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식이 지성일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상 '행동하는 무지'나 '그릇된 신념'에 근거한 무책임한 행위, 그리고 열광적인 이데올로기의 신앙에 빠진 나머지 견제주의론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시대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소중한 이유는 거칠어 가는 사회풍토에 끊임없이 양심의 불빛을 비취주고, 양심의 소리를 들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도 하나의 歷史的 存在인 이상 대학의 이념과 기능도 역사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교육학자 폴

렉스너(Abraham Flexnar)는 『대학론』에서 “대학은 그 시대 속에서 존재한다. 대학은 사회에서 유리된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 대학은 그 시대의 표현이요, 현재와 미래에 작용하는 하나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대학은 올바른 方向舵를 건잡아 쥐고 진리탐구의 항해라는 진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우유부단을 떨쳐버리고 제자들에게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수들은 오늘의 일부 대학생들이 함몰해 있는 ‘독단과 독선’에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무기력한 방관은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교권의 추락을 탄식만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 스스로가 대학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벼랑에 선 대학을 구출할 수 있는 힘은 대학인 스스로에게 있다. 대학의 사명인 진리탐구의 기풍이 하루 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내일의 비극을 방지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학은 학문적으로 존경받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왕성하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있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기화로 대학가가 폭력의 온상 또는 私刑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도덕한 폭력사태를 눈앞에 보고 묵인하는 자는 그 공범자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의 이상주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적 정의감은 양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그들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거나 또는 사회의 정세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학문적 인식을 갖지 않을 때 그들의 대체적인 이상주의적 경향은 비교적 용이하게 비합법·폭력주의의 혁명적 선전과 선동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이상주의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이 천박한 부화뇌동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제 대학에 理想主義를 회복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아이디얼리즘을 상실한 대학은 치량한 後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일반학생이 올바른 의미에서 이상주의적인 사회적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은 자기가 몸담은 학

원 자체의 질서와 기능이 일부 분자의 전략적 실행사에 의해 저해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밖에 대해서 대학의 自治를 주장하는 자는 안에 있어서 대학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대학에 있어서 자치의 주장에는 그것에 수반하는 책임이 있음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 2. 大學과 學問精神

대학은 감성의 府가 아니라 ‘이성(Vernunft)의 府’로서 대학인은 논리에 닿는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칸트는 대학의 이념을 이성에서 도출했다. 즉, 대학이 서는 까닭은 이성 그 자체이며, 이성을 요구하는 까닭은 그때 그때의 정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리성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며, 대학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학은 歷史의 意味를 물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일찍이 키케로는 ‘역사는 참으로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은 한 문화의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류역사의 방향을 여러 과학의 다양성 속에서 분석하고 발전모형을 설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은 역사의식을 도외시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知性社會이다. 지성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식이며, 대학은 이러한 지성을 길러내는 곳이다.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는 대학이란 부결없는 한 토막 회극에 지나지 않으며, 지성의 공백 속에서 시도되는 역사의 창조란 허황된 꿈에 그치고 만다. 그러기에 우리 대학인은 누구보다도 예리한 역사적 안목과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오랜 세계사의 발전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굴절이 있지만, 결국은 정의와 진리와 선은 이기고야 만다는 역사의 神이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역사창조의 진행과정은 좌절과 실의, 고뇌와 혼돈의 쓰라린 고비가 무수하지만 결국은 단인의 자유와 정의와 복지를 향하여 도도히 흘러간다는

역사의 神을 굳게 믿고, 습역사적 정신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진리를 알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敎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을 주입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전달되는 신념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교수는 자기의 학설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 교수는 다만 학생의 연구를 돕는 의미에서 자기의 학설이나 선배와 동료의 학설을 학생에게 소개할 뿐이다. 大學敎育은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생은 비판적 정신과 연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과도한 사회적 참여 내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조국의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지적 공급원의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파행적 정치현실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항거의 진원지가 되었다. 특히 정치·사회 현실을 개혁하는 데 소모한 대학의 에너지는 너무나도 과도하여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대학은 독재 타도와 민주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본연의 모습이 크게 훼손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부정적 정치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한 대신, 진리탐구와 대학발전에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여 그 내실이 허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화를 빙자해 대학의 내부질서와 규율엄수의 혼란을 가져온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는 심기일전하여 새롭고 활기찬 대학상·대학인상을 자율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學問의 精神은 광신적이며 선동적인 교화의 정신이 아니라 참을 추구하는 진리의 정신이다. 조그마한 자아의 편견과 욕망과 주관 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것, 공평한 것, 올바른 것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진리의 세계가 전개될 수 있다. 진리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단

과 싸우고, 오류와 싸우며, 허위와 맞서고, 권력과 싸우면서 부단히 전진한다. 코페르니쿠스의 곤욕, 브루노의 焚刑, 예수의 십자가, 소크라테스의 독백, 이차돈의 처형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류의 '슈퍼스타'들이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인류의 스승인 간디는 말하기를 "진리에 대한 충성이 모든 충성에 앞선다."고 갈파한 바 있다. 간디는 '神은 진리'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진리가 곧 神'이라고 하며 진리의 신에 가장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진리의 전개사이며 진리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인류의 부단한 고투의 기록이라 하겠다. 일찍이 루터는 "순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한 것이 진리의 힘이다, 진리의 빛이다.

또한 대학의 사명은 學問的 정신의 育成이다. 학문적 정신의 실체는 진리에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페르시아 임금 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의 증명을 발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간결한 말이지만 학문적 탐구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이라 하겠다. 즉,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왕좌와 권력을 가지고 호사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는 기하학의 한 명제의 증명을 발견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의 탐구정신이다.

학문적 정신의 속성으로서 두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는 진리의 탐구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둘째로 진리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의 압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으며 세간의 평판과 인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을 '참'으로 알며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정신으로서, 이것은 때때로 소수자의 정신이기도 하며 이 정신이 왕성하지 못한 데서는 건전한 데모크라시가 있을 수 없다. 자유를 위한 싸움은 이 정신의 산물이다. 이 정신에 의해서만이 진리의 권위는 유지될 수 있다. 사실 진리의 탐구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세력, 비이성적인 감성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거짓된 인내와 굴복이기보다는 정직한 분노와 충고가 되

는 진리, 모든 사람이 거짓 즐기워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참을 즐기워하는 진리,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미 있었기에 찾아야만 하는 진리, 그저 구해질 수 있기보다는 슬한 고통과 인내의 값을 치른 뒤에야 얻는 진리, 그리고 때에 따라 변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있는 진리를 말한다. 한마디로 학문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요, 진리의 정신이다. 眞理의 精神은 순수의 정신으로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할 때 우리들은 저절로 자유의 정신, 진리의 정신, 순수의 정신을 배우게 되며,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들의 인간성은 순수해지며 진리의 정신으로 조각되는 것이라 하겠다. 학문과 자유, 학문과 인간, 학문과 생활, 학문과 실천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연구되고 진수되는 학문은 순수성과 실용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계의 장구한 정신사 속에서 인간이 창출한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다. 혹자는 大學의 精神을 창조의 정신, 사랑의 정신, 진리의 정신, 자유의 정신, 정의의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대학은 자유와 진리,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탐을 찾는 '실험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대학에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학문·예술·윤리·종교·사회·정치·경제 등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視野와 綜合的 研究가 있어야 한다. 이 첫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학은 철학·역사·과학 등에 관한 폭 넓은 교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강의를 보충하기 위한 왕성한 독서의 기풍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 학과 사이의 공동연구와 토론 등으로 종합적인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각 학과별 專門分野의 研究가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원 교육이 본격적인 계도에 올라야 할 것이며, 대학에 부설된 각종 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오늘의 대학교육은 오로지 지식전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人間教育에 힘써야 한다. 인간의 비인간화를 걱정하게 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단순한 전문가 또는 지식인에 불과한 사람들의 불행을 고려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내도록 힘써야 한다. 이 세번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건전한 서클 활동, 체육(운동경기) 등에 관한 과외활동도 크게 권장되어야 한다.

과외활동의 하나인 대학의 축제는 저속적인 대중문화를 맑게 씻어주는 청량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축제는 마땅히 문화적 사명감에서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문화로서의 대학축제는 유행이나 풍조에 쉽사리 부화뇌동하는 대중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정리·종합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속적인 대중문화를 정신과 가치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향도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대학에서의 문화는 學問的 文化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문화는 진리를 위한 자유의 문화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대학문화는 본질적으로 평화이어야 하고, 진리와 자유의 쌍두마차에 의해서만 끌려가야 하되 반드시 질서라는 이름의 채도를 달려야 한다. 단, 그 채도는 교수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분절된 것이어야 한다. 대학의 축제라는 한마당 큰 잔치는 향락과 퇴폐와 방종과 편견에 기울지 않고 정신적 자아형성의 성숙을 위한 고뇌와 환희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으로서 중요한 것에 學問的 國際化와 世界化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수단의 혁명으로 세계는 이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문도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없이는 신진대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이론이나 학설이 갖는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고, 새로운 이론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대학문의 세계에서 학술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수용, 그리고 교류는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 학술교류 장에서의 소외는 곧 학문의 침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학문의 국제화를 위해서 진취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학의 풍요한 知的 風土라고 하겠다. 그리고 풍요한 지적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3. 大學과 大學精神

그러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대학정신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제도가 발달해 오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독립정신, 자유정신, 계획정신, 낭만정신이라는 4가지의 대학정신을 길러오게 되었다.

첫째, 대학의 '獨立精神'이라는 것은 대학이 어떠한 국가나 정권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하나의 대학국가라는 자치조직을 갖추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어떤 나라 사람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世界主義 精神을 뜻한다. 이러한 세계주의의 정신에서 대학을 University라고 부르게 되었다.

둘째, 대학의 '自由精神'이라는 것은 대학이 어떠한 권력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정신을 뜻한다. 이러한 자유정신에서 근대적인 인류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대학의 '開拓精神'이라는 것은 대학이 종래의 그릇된 제도나 부정·불의를 타파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제도를 세워가는 선구적인 개혁정신을 뜻한다. 이러한 계획정신에서 근대적인 민주제도가 싹트고 발달하게 되었다.

넷째, 대학의 '浪漫精神'이라는 것은 대학생이 여러 가지의 단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도자가 될 자질을 기르는 한편 서로 젊은 시절의 뜻을 드러내고 학생생활을 즐기는 정신을 뜻한다. 이러한 낭만정신에서 대학의 전통이 생기고 대학을 그리는 마음이 깃들게 된다.

그러던 대학에서의 낭만정신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사회에서 우리 대학생이 가져야 할 진정한 '낭만정신'을 A, B, C, D 순으로 4가지만 들어 보기로 한다. 즉, ① 대망(ambition), ②빛나는 눈(bright eyes), ③ 뚜렷한 목소리(clear voice), ④꿈(dream), 여기서 꿈이란 망상과 공상이 아니라 원대한 '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꿈을 가진 자는 언제나 성심하다. 꿈을 품고 사는 자는 삶에 박력이 있다. 꿈을 가진 자는 오늘에 주저하지 않는다. 꿈은 변화와 창조 의 힘을 샘솟게 한다. 꿈꾸는 자는 창조하고, 수를 세는 자는 재화를 쌓는다는 말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생들의 구호에 "Work hard, Enjoy hard!"라는 말이 있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즐겁게 놀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우리 말에도 晝盡甘來란 말이 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마련이다. 노고없이 쾌락을 구하는 것은 닭에게 사료도 주지 아니하고 알을 구함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청년이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고 희망과 이상을 꿈꾸고 사는 것이 그의 생명이기도 하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담배와 술로 얼룩진 낭만은 향기 없는 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속담에 "해장 막걸리에 취하던 어른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낭만은 속물주의자의 낭만에 불과하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낭만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낭만주의는 형이상학적이여야 한다. 젊은 대학생들의 낭만주의는 이상주의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 낭만주의와 이상주의는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다. 낭만이 있는 곳에 이상이 있고, 이상이 있는 곳에 낭만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 밭에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대학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고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생은 냉철하게 사색하고 옳게 비판할 줄 아는 創造的 知性을 배워야 한다.

지성의 임무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며 이를 시정하고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에 한걸음 다가서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

르지 않는 돌에는 이끼가 끼게 마련이다.”라는 옛 先賢의 격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大學의 改革이 힘과 폭력의 논리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생의 사명은 지성인으로서 한 국가의 간성을 이루며, 어느 국가에서나 내일의 주인공으로 활약되어 있는 운명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대학생의 낭만은 무가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대학생이란 꿈과 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대학생은 是와 非, 善과 惡, 當과 否를 구별할 줄 아는 도덕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청춘시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오직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의 황금기인 동시에 자기 인생의 갈림길의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기에 독서와 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독서와 학습은 곧 끊임없는 자기성장의 길이요, 준엄한 인격수양의 과정이며 또한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지성을 연마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에게 생계를 위한 일로부터 해방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학집단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에 대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대학은 그 사회의 희망이요, 장래가 걸린 발전의 요람이다. 그 곳에는 학문에의 무한한 정열과 예술적 낭만과 이상이 번득이는 叡智가 있어야 한다. 대학은 문명적이고 지성적인 원동력을 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폐음의 시기를 놓치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과의 교섭 없이는 인간답지 못하며 학습에 있어서는 적당한 시기가 있고 그것이 지나면 혼련의 효과가 격감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과 좋은 말을 주고 받으면서 자라나야 사람다운 성격과 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베를렌(Verlaine)이라는 프랑스의 시인이 쓴 ‘처음의 Yes’라는 작품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처녀가 자기를 사랑해 준 청년에게 처음으로 Yes라는 승낙

의 말을 입에 오르내릴 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내용이다. 가을의 숲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청년은 그녀와 걸어간다. 그리고 청년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그스레한 수줍은 핑크색과 함께 즐거운 표정과 떨리는 나즈막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Yes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터 없이 맑은 장면인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순간은 젊음이 흘러넘치는 청순한 인생의 황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피티아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떠한 색깔을 좋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사람의 얼굴에 비치는 색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청순하고 아름다운 대답인가?

이와 같이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큰 꿈과 낭만을 노래하는 청춘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생의 황금기라 하겠다. 수치심은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갖대가 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철던피라 하여 금수처럼 치부해 상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치를 모르는 사회는 인간의 세계라 할 수 없는 금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부의 창시자인 마셜(Alfred Marshall)이 경제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행했던 취임사의 마지막 구절, 즉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대학에서 학문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나를 메로시켰는지 모른다. 사실 젊은 날의 정신적 방향은 말 그대로 진리와 정의에의 진지한 모색과 접근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제될 때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대학의 지혜와 담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대학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이다.

#### 4. 바람직한 大學人像

대학은 고도의 合理性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으로의 전환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에 의해서 휴머니티가 세련되어 가는 것이다. 대학에 비판정신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

다. 이와 같은 創造的·批判的 知性을 구비한 인간형성이야말로 대학의 사명이기도 하다.

북경대학이 새로운 중국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고, 베를린대학의 창건이 독일민족의 부흥을 가져왔으며, 하비드대학의 설립이 미국문명의 커다란 에네르기가 되었고, 옥스포드대학이 영국 건설의 基幹이 되었으며, 동경대학이 일본의 놀라운 발전에 기여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학은 과거지향이나 현재지향의 집단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집단이다. 대학은 언제나 민족의 내일을 바라보고 역사의 앞을 제시한다. 1년 앞을 내다 보는 자는 꽃씨를 심고, 10년 앞을 내다 보는 자는 사람을 심는다고 한다. '교육은 百年大計'라고 한다. 교육은 오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민족의 정신적 준비이다. 그런데 요즘 "대학은 많으나 공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하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실례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생 년 학지표를 보아도 독일의 대학생 한 학기 독서량이 8.9권, 미국 8.8권, 프랑스 8.3권, 일본이 8.1권인 데 비해 우리 대학생의 경우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주당 도서관 이용횟수도 독일 4.7회, 미국 4.4회, 프랑스 4.6회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2.5회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한 강좌당 주당 학습시간, 강좌당 리포트 제출편수도 크게 뒤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이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학생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혁신을 하여야 한다. '공부하는 대학'만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의 장래는 대학에 달려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만이 미래 한국의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이 국제화 시대에 존립하는 유일한 길은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이다.

메테르링크의 명작 『파랑새』에서 '행복의 새'를 찾아 여행을 나선 치르치르, 미치르 두 남매의 이야기가 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헤치고 미지의 나라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파랑새'를 찾

을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여행에 지쳐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행복의 새'는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은 학문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때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명실공히 대학은 앞의 소우주로서 제 모습을 찾고 그 제 모습으로 크게 자라고 또 높게 일어서고 길게 뿌리박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캠퍼스는 학교당국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각종 정치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되었고, 쟁과리 소리와 북소리, 화염병, 최루탄이 범벅된 전쟁터가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특학년 수업거부, 시험거부를 주도하고, 학교가 반대하면 어느 곳이건 걸령하고 공개규탄을 서슴지 않는다. 학교당국도 허약해져서 운동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운동권 간부면 낙제생이라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오늘의 바벨탑과 같은 대학현실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은 '폭력'을 낳는 아수라장이 되어서도 안 되며 학의 비법·폭력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학에서는 철학적·사상적·이념적 토론이나 연구가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즉, 정부 비판도 투쟁의 형태에 의한 것보다는 정연한 논리와 승화된 학문의 형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의 현실참여는 행동이 아닌 학문적인 논리로 하여야 한다.

오늘의 지식인은 공산주의가 20세기의 무지개였다가 이제 신기루로 사라지고 있는 근본이유를 체계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 사실 온 세계에서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적 이념이 썰물 같이 밀려간 상태에서 남은 과거의 이념에 몰두하여 혁명적인 폭력투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둔한 시대착오적 행위라 하겠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새 시대의 대학생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대학은 '80년대의 암울했던 진통을 말끔히 정리하고 선진국의 대학들처럼 21세기를 예비하는 면학의 대학으로 젊음의 패기와 지성이 응축유치는 평화와 협동과 낭만의 광장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일대변신과 부활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自律的 力量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민주화는 교육부의 관료적 간섭이나 강요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의 창의와 지혜와 용기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오늘의 대학이 창조적 활력을 잃고 극단적 학생운동의 온상이 된 이유는 지난날 권위주의적 타성에 의한 권력의 대학에 대한 억압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역량으로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순리이지 관권의 간섭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인의 사명회복과 대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의해서만 대학이 廢墟가 아닌 영원한 삶의 센터가 될 수 있다. 대학은 삶의 소우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대학은 후대에 등장하는 사회의 묘목을 기르는 식물원에 비유할 수 있다. 식물원의 정상운영이 적당한 물과 거름과 햇빛을 요구하듯이 대학의 정상운영은 교수·학생·교직원의 역할기능의 三位一體的 調和를 전제로 한다. 그 어느 한 부분도 게 기능을 못하면 대학인이 원활히 커가고 자랄 수 없다.

요컨대 대학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학문하는 자세와 풍요한 지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정연하며 명랑하고 쾌활한 민주적 분위기에서 자신이 타고난 천분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선인들이 이룩한 학문을 계승·전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학문을 발굴·개발·연구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현대의 대학사회에서 바라는 참된 대학인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대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하나의 맑은 지성과 양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스스로가 한결같이 땅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의 편, 진리의 편, 義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의 건전하고 세련된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대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라 하겠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에 대해 君師父一體라는 말로 존경의 뜻을 표해 왔다. 이 말을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한다면, 스승이 학생에 대해

서 군주와 같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스승에게는 어비와 같은 친밀함과 애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원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요,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다. 『禮記』 가운데 “배운 연후에 비로소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친 연후에 비로소 지식이 빈곤함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안 연후에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지식이 빈곤함을 안 연후에 능히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서로 무엇인가 얻게 하고 알게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敎學相長의 뜻인데 이는 사제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를 만드는 법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가혹하리만치 지적 혼란을 시키고 학생은 교수에게 부단히 자극을 주어 더욱 학문에 정진토록 하며, 그 사이에 상호 신뢰·사랑·존경이라는 가교가 놓여질 때 대학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倅啄同時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야말로 교육자, 특히 대학교수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하겠다. 倅啄同時란 어미닭이 그 알을 21일 동안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 품어주면 그 알 속에서 생겨난 병아리가 주둥이로 알의 속껍데기를 툭툭 쪼아 소리를 내고, 이에 따라 어미닭이 밖에서 알의 껍데기를 쪼아 깨뜨림으로써 병아리로 하여금 햇빛을 보며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뜻깊은 교훈을 주는 말이라 하겠다. 대학교수는 모름지기 이러한 倅啄同時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감싸주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무쪼록 학생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서 한 알의 모래에서도 하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의 ‘이름’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慧眼이 길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